

2648만명 대이동... 서울~부산 8시간40분, 귀성 내일 혼잡

(오전)

연휴 日 평균 530만명 이동 예상
짧은 귀성기간, 귀경보다 시간 ↑
귀경길은 22일·23일 집중 전망
고속도로 통행료 연휴기간 면제

올해 설 고속도로 귀성 소요시간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부산이 8시간 40분가량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귀성은 설 전날인 오는 21일 오전, 귀경은 설 다음날인 23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3년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 설문조사'를 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648만명, 하루 평균 53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91.7%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속도로 최대 귀성 소요시간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부산 8시간 40분, 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광주 7시간 40분, 서울~강릉 5시간 20분, 서울~대전 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연휴 도시간 예상 소요시간

고속도로 기준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료: 국토교통부

일자별 이동인원 전망

단위: 만명



지역간 이동량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뉴스시그레픽

/사진뉴스

귀경의 경우 부산~서울 8시간 15분, 목포~서울 6시간 55분, 광주~서울 6시간 35분, 강릉~서울이 4시간 30분, 대전~서울 4시간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은 설 전날인 21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날인 23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22일)과 설 다음날(23일)이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교통량 분산으로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동이~육천

(3.5km)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개통되고, 광주와광순환고속도로 남광산나들목(IC)~남장성 분기점(JCT)(9.7km) 구간이 신설·개통된다.

국도의 경우 국도23호선 대덕~용산 등 3개 구간(21.5km)이 신설·개통되고, 국도19호선 영동~보은 등 7개 구간(22.55km)이 임시 개통된다.

경부선 서울 요금소(TG)~안성 나들목(IC) 등 고속도로 113개 구간(1208km)과 국도3호선 대원 나들목(IC, 성남)~태전 나들목(IC, 광주) 등 국도

19개 구간(223.4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고속도로 53개소 92개, 국도 43개소 137개)해 교통량 분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인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간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아울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22일과 23일 서울 시내버스 및 지하철(서울, 인천, 공항철도 등)의 막차시간을 연장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를 받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신권 깜빡했다면... 은행 이동식 점포로 GO

시중銀, 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재개
신권 인출·교환, 계좌이체 등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두 번째 명절이 돌아옴에 따라 은행들이 이동식 점포 운영을 재개한다. 올해 귀성길은 지난해 추석 때 이동식 점포 운영에 소극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오는 20~21일 이동점포 운영을 통해 신권 교환 및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5대 시중은행(농협·우리·하나·KB국민·신한)은 모두 이동식 점포 운영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오는 20일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오전 9시 문을 열고 오후



하나은행 이동형 자동화기기(ATM), 하나은행

4시 닫는다. 신권 인출과 계좌이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또한 20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 운영을 재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권 교환과 자동화기기를 운영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양일간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하행선)에 이동점포를

배치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출금거래와 계좌이체, 신권 교환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 이동식 점포를 마련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권 교환 업무를 돕는다.

신한은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성휴게소(하행선)에 이동식 점포를 선보인다. 20일부터 양일간 신권 교환 및 입·출금, 예금상당, 통장정리 등을 제공한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부산은행은 오는 20일 진영휴게소(순천방향)에서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또한 같은 날 정읍휴게소(하행선)에서 신권 교환을 지원한다.

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은행들이 이동점포 마련을 결정한 만큼 고객들의 편의성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고향 가기 전 보험사서 車 점검 받으세요”

주요 손보사, 코로나 확산 우려에 휴게소 내 임시 정비소 운영 안해
보험사별 정기점검 서비스 권장

설 명절에 고향을 떠나기 전 차량 점검을 받아야 한다. 주요 손보사가 귀성길 차량 점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아서다. 다만 DB손해보험은 전국 프로미카 월드에서 명절맞이 특별 차량 점검을 제공한다.

명절맞이 차량점검은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오일, 배터리 등 25개 항목으로 구성해 성능 점검과 실내 살균 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케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2가지 점검과 살균탈취를 진행한다.

손보사들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 휴게소 내 임시 정비소 개설은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량을 맡기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정비 업무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손보업계는 각 보험사별 정기점

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엔진오일, 제동장치, 배터리 점검 등 경정비는 매년 모든 손보사가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출동 서비스 사용을 위해 가입한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사용 방법 숙지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 입장에서 경정력 제고 차원에서 차량 점검 서비스 운영에 나설 수 있지만 확진자 발생이 우려돼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정기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대규모 파업...항공·대중교통 등 마비 /사진뉴스
▲ 홍콩, 30일부터 코로나19 감염자 '5일 격리의무' 폐지

▲ 日스가 前총리, 현 총리에 거들 쓴소리... '반 기사대색' 강화
▲ 美 테크기업 줄줄이 '칼바람'... 6만명 넘게 해고



▲ 美, 北 '핵보유' 강조에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목표" /사진뉴스
▲ 대만 외교부장 "中 2027년 무력 침공 가능... 대만 희생양 될수도"